

RE100 에너지 혁신 향한 '첫걸음'

전북자치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킷오프 회의 개최 에너지 현안·이슈 공유·수소·풍력 등 4개 분과 운영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첫 킷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의 에너지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관산학연의 협력

체계 강화와 미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이번 킷오프 회의는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인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을 필두로, 각 분과장과 간사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해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운영방안과 2025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얼라이언스는 에너지 정책, 풍력, 수소, 분산에너지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에너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인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REC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도 에너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와 함께, 운영협의회는 향후 전북 지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RE100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내 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배우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킷오프 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민관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첫 킷오프 회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오전 6시 45분 도청 공연장에서 비상소집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김지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계획을 철저히 검토 보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 읍지연습 앞두고 불시 비상소집 실시

김관영 도지사 "도민 안전 최우선"… 비상 대비 태세 준비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읍지연습'을 앞두고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 45분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예연은의 다르게 불시에 비상소집 훈련이 이뤄졌다. 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공무원의 신속한 응수에 목표를 둔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국내·외 안보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태세를 갖춰 놓아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비상 대비 계획을 철저히 검토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읍지연습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비상 대비 훈련으로 올해 훈련은 19일~22일 진행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에 '팔 걷어'

'사회성과 우수기업 특례보증' 본격 시행... 총 62.5억 규모·기업당 최대 2억 한도로 융자금리 중 2% 이차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고 '사회성과 우수기업 특례보증'을 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간 5억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6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1개월) 조건으로, 도는 대출금리의 2%를 최대 5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며, 이중 사회적 가치지표(SVI)가 보통 등급 이상이거나 도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신청하면 된다.

오백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여름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임실 덕처·완주 운주의 하천·계곡 찾아... 안전 시설물 점검·안전수칙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안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도는 임실군 덕치면과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하천과 계곡을 방문하여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물놀이

객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임실군과 완주군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도내 유명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놀이 안전 문자 발송과 비관리 지역까지 확대된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또한,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이 지속됨에 따라 매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지역 경고 방송과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를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운동목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주말 많은 인파가 도내 유명 피서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물놀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천리길 플로깅' 17일 개최

전라도 천년 역사 체험하며 플로깅 활동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전주 한옥마을 돌레길에서 '전북 천리길 플로깅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천리길 해설사와 함께 전라도 천년 역사를 체험하며 자연 속을 걷는 특별한 여행으로,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록원정대 50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한벽당, 한벽굴, 치명자산 등을 따라 걷는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전북 천리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자연물을 이용한 캵받침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며, 행사를

마친 후에는 초록원정대 기념배지를 받을 수 있다. '전북 천리길 초록원정대 플로깅 함께 걷기 행사'는 9월 13일 장수 방화동 생태길과 10월 12일 군산 고군산길(구불8길)에서도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ecotour.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강해원 환경산림국장은 "전북 천리길은 2017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걷기 좋은 명품길을 선정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탐방객이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며, "앞으로 장거리 코스로 개발중인 삼천리길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전국의 걷기 탐방객 유치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4-108호

고창~내장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주민공람 공고

고창~내장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성내면 용교리,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단곡리, 하부리, 신면리 일원
 - 면 적

구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고
당초	1,430	828,902.1	205	96,203.3	601	144,691.8	824 389,007.0
변경	1,638	766,117.5	323	157,573.0	699	141,403.1	716 456,141.4
고창군							
당초	1,193	483,050.1	172	80,466.3	611	107,354.8	610 296,229.0
변경	1,192	485,119.0	172	80,838.2	611	104,863.1	509 299,417.7
정읍시							
당초	237	146,862.0	33	14,737.0	90	37,337.0	114 93,778.0
변경	446	269,998.3	131	76,734.8	83	36,540.0	207 156,723.7

 - 연장 및 폭원: L=3.38km, B=17.5m (왕복4차로)
 - 설계속도: 70km/hr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지방도708호선 중 노복 혈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고창~내장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간 원활한 물동량 수송,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계획(보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 ~ 2030년 6월
4. 관련도시: 실용 생막 (공람장소에 비치)
 - 위치도/주민의견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편입용지 조서
5.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2024.8.16. ~ 2024.8.30.(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나. 공람장소: 고창군청 건설과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과(063-560-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고창군 수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지역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 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천안면 백운면 노촌리	· 연장: 2.5km · 폭원: 9.0m (왕복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경주시 황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목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천안면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절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계획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발송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